지난해 전북지역 사망원인 1위 '암'

심장질환, 자살, 뇌혈관질환, 폐렴 순 사망자 수 1만4,691명

박상래 기자

지난해 전북지역 사망자 수는 1만4,691명으로 사망원인은 남·여 모두 악성신생물(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심장질환, 자살, 뇌혈관질환, 폐렴 순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전북지역 사망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도내 사망자 수는 1만4,691명(남 7,645명/여 7,045명)이며,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309.5명으로 집계됐다. 연령표준화 사망률이란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이다.

지난해 표준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의한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84.3명)이 가장 많고, 이어 심장질환(26.7명), 자살(23.5명), 뇌혈관질환(21.7명), 폐렴(20.5명) 순으로 분석됐다.

표준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의한 남자 사망원인 순위를 보면 암(123.7명), 자살(34.5명), 심장질환(33.4명) 순이고, 여자는 암(54.5명), 신장질환(20.1명), 뇌혈관질환(17.3명) 순이다.

지역별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장수군(113.2명), 심장질환은 고창군(51.4명)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도내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무주군이 374.5명으로 가장 높고, 조사망률(인구 1000명 당 새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임실군이 1,524.4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별 사망자 수는 0세 16명, 1~9세 7명, 10~19세 31명, 20~29세 88명, 30~39세 158명, 40~49세 415명, 50~59세 1,030명, 60~69세 1,673명, 70~79세 3,181명, 80세 이상 8,092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연령별 사망자 수 구성비는 40세 미만 2.0%, 40~59세 9.8%, 60~79세 33.0%, 80세 이상 55.1%로 조사됐다.

주요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구성비를 보면 암 27.2%, 심장질환 8.6%, 자살 7.6%, 뇌혈관질환 7.0%, 폐렴 6.6%, 기타 43.0%로 파악됐다. 게다가 전체 사망자 중 80세 이상의 사망자 수 구성비는 55.1%로, 사망자 수는 전주시가 3,40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장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고창군이 51.4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 정읍시 45.4명 순이다.

뇌혈관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임실군이 29.1명, 남원시 27.4명으로 호남지역에서 가장 높고, 사망자 수는 전주시 25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은행, 52년 만에 처음 여성 임원 탄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김선화 고객업무부장 선임

전북은행 역사 반세기만에 처음 여성 임원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김선화(사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이다.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인 CCO(Chief Customer Officer)에 김선화(52) 고객업무부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CCO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새로 선임된 김선화 CCO는 앞으로 은행 전반의 제도와 프로세스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진단하고 개선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전북은행의 첫 여성 임원 타이틀을 달게 된 김선화 CCO는 29년차 JB맨으로서 영업점과 주요 본부부서를 두루 거치며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외유내강형 리더로서 직원들의 신망 또한 두텁다.

이번 전북은행의 여성 임원 발탁은 서한국 은행장 취임 이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선포하고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경영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 지향과 여성인재 발탁으로 유리천장을 해결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행보이기도 하다.

또한 이 같은 적극적 움직임은 능력 및 역량을 배제하고 '여자라서' 오르지 못했던 기존 구세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요즘 사회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기 위한 전북은행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김선화 부장은 "첫 여성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부담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제 몫을 충실히 해 나가면서 많은 여성 후배들에게 길잡이가 되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상래 기자

진안 부귀농협, 김치가공공장 통합

진안 부귀농협이 지난 27일 농협김치의 경쟁력 강화와 김치종주국 위상제고를 위해 46명이 참석한 대의원총회에서 찬성율 96%로 김치가공공장 통합을 결정했다.

농협의 김치공장 통합은 최근 중국의 '김치공정'과 '알몸배추' 파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횡보로, 이번 부귀농협의 통합 결정은 전국에서 수안보농협, 웅천농협에 이어 3번째다.

그동안 농협 김치공장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듯 보였으나,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경영상황으로, 지속적인 단독 운영 시에는 농협 계통매장에서 조차 경쟁사에 비해 점유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식품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통합이후, 공장간 중복된 판매채널을 우선적으로 조정하고, 목표시장인 농협 계통매장 및 온라인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영배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에서 통합법인의 경영안정과 책임경영을 위해 현금출자를 실시하고, 부귀농협은 김치공장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이다"며 "통합이후조합원들이 생산한 고추, 배추 등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귀농협 김치공장은 1992년 설립, '마이산 김치' 브랜드로 묵은지를 전문화해 판매해오고 있다. 통합이후, 농협의 식품판매 자회사인 농협식품의 대리점을 활용한 판매와 OEM 생산을 통해 전국규모의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농협진안군지부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에서 전국의 농협 김치공장 10개를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통합이후 국민에게 안심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협김치의 시장 인지도 상승 및 매출확대를 위해 집중적인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박상래 기자

지난 27일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 온실에서 국화 평가회가 열린 가운데 연구원들이 새로 육성한 품종의 생육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알아서 척척 '로봇화·자동화' 축사 시대 연다

사료급이로봇-로봇착유기 등 접목 인력난 해소, 시간·노동력 절감

축사에서 사람 없이 알아서 척척 작업하는 로봇화·자동화 장치들이 본격 도입되고 있다.

1년 6개월가량 사료 급이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한우사육농가 김삼기 대표는 "로봇 도입 전에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2시간씩 먹이를 주었는데, 지금은 로봇이 알아서 주니까 4~5일에 1시간 정도 사료 배합기에 사료 채우는 일만 하면 된다"며 "사료 주는 데 드는 시간이 대폭 줄었고 노동력도 약 10분의 1 정도로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로봇화·자동화 장치들은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축산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된 농작업을 손쉽게 빨리할 수 있어 시간과 노동력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7일 디지털축산 실현을 위해 사료 급이로봇·로봇 착유기·오리사 깔짚 자동살포기 등 로봇화·자동화 장치들을 축산농가에 활발히 접목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료 급이로봇은 농장주가 사료 주는 시간·횟수·양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소에게 먹이를 주는 자율주행로봇이다. 한우 200여 마리를 키울 경우 하루에 먹는 사료의 양은 대략 2,400kg으로, 한 마리당 평균 12kg을 먹는데, 농가에서는 거의 매일 아침저녁으로 사료를 주다 보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로봇 착유기는 3D 카메라와 로봇팔을 이용해 사람 없이 소젖을 짜는 장치다.

낙농가에서 연간 젖소 1마리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은 약 71시간인데, 이 중 30시간이 착유작업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든다. /박상래 기자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내달부터 발효

파견 근로자 연금 보험료 5년 면제

지난 2019년 7월 9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에 발효된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납부해오던 우루과이 연금 보험료가 5년 간 면제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게다가 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양국이 제3국과 각각 체결했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산정돼 해당국에서 지급한다.

/박상래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기능장 합격자 7명 추가 배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2021년 하반기 국가기술자격시험 결과 7명의 기능장을 추가 배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최근 합격자 발표 결과 이 회사는 상용엔진품질관리부 문병호 씨가 가스 부문 기능장에 합격한 것을 비롯해 총 7명이 에너지와 위험물, 가스, 주조 등 4개 부문에서 기능장에 합격했다.

이번 합격에 힘입어 상용엔진품질관리부 문병호 씨는 앞서 취득한 자동차와 주조, 에너지관리, 배관 부문에 이어 5관왕에 올랐으며, 전주시설동력팀 구문회 씨는 가스와 에너지관리, 주조, 배관 부문 등 4관왕에 올랐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2011년 기능장 5명을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1년 간 총 254명의 기능장 합격자(중복합격자 포함)를 배출하며 우수 기능인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익산농협 떡 방앗간

조합원이 생산한 국내산 쌀, 팥 등을 이용하여 정성껏 만듭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제2019-5-9297호

주문전화 063)840-1845

전북 익산시 인북로6길 58 (익산농협 본점 뒷편)

창간21

이 광고는 새전북신문이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실어드리는 공익광고입니다.

WISE Foundation

'당신의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T 010-9220-8545 E chosite8545@hanmail.net H wise4060.modoo.at